

진리란 무엇인가? - 제2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Jeff Pippenger

2023-09-05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역사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봉함되어 있었던 일곱 우레가 나타내는 역사임이 밝혀졌다. 이 글에서 나는 일곱 우레의 상징성에 관해 우리가 밝혀낸 몇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역사적 연대들을 서로 겹쳐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그날을 포함하여) 네 가지 예언적 이정표가 있다. 곧 첫째 천사의 기별에 권능이 부여됨, 첫 번째 실망, 한밤중의 외침, 그리고 대실망이다.

1840년 8월 11일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모세로 예표되었다. 1844년 봄의 첫 번째 실망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엑서터 캠프 집회에서 시작된 한밤중의 외침은 모세가 이집트에 도착하여 이집트의 장자들의 죽음을 최초로 경고한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은 홍해 앞에 선 히브리인들로 예표되었다.

다윗 왕 시대에, 1840년 8월 11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준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1844년 봄의 첫 실망은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진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시작된 한밤중 외침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멸시한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1840년 8월 11일은 그리스도의 세례로 예표되었다. 1844년 봄의 첫 실망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실망으로 예표되었다.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엑서터 캠프 미팅에서 시작된 한밤중의 외침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표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은 십자가로 인한 실망으로 예표되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이정표가 모든 개혁 운동의 완전한 구조 중 일부만을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이정표를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역사의 증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 개의 각 선의 예언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선의 이정표들이 동일한 주제를 지닌다는 것이다.

모세의 경우, 네 개의 이정표 모두는 아브라함의 예언을 성취하여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켰다. 다윗 왕의 개혁의 맥락에서는 네 개의 이정표 모두가 하나님의 궤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노선에서는 네 개의 이정표 모두가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었다.

1840년 8월 11일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이 확증된 날이었다. 1844년 봄의 첫 번째 실망은 그 원칙의 실패한 적용 때문에 발생했다. 사무엘 스노의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그 실패한 적용에 대한 교정이자 완성이었다. 그 교정된 메시지는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에 근거했으며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다. 네 가지 이정표 모두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을 가리키고 있다.

화이트 자매는 일곱 우레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나타낸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며, 일곱 우레가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장래의 사건들'도 상징한다고 가르친다. 일곱 우레는 1840년 8월 11일에 시작되어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 네 가지 예언적 사건을 가리키며, 그 네 가지 이정표는 같은 순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복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은 1840년 8월 11일에 의해 예표되었고, 그 두 날짜는 모두 이슬람과 연관되어 있어 재림주의의 시작과 끝을 서로 연결한다. 1840년 8월 11일과 2001년 9월 11일은 모두 각 시대의 역사에서 주된 예언 해석 원칙을 확증한 사건이었다.

2001년 9월 11일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했고, 1840년 8월 11일에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했다. 퓨처 포 아메리카의 첫 번째 실망은 2020년 7월 18일 이슬람에 관한 실패한 예측이었다. 인봉이 풀린 그 기별은, 1844년 여름 엑서터에서 있었던 한밤중 외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주어졌던 실패한 예측에 대한 정정이다. 밀러파에게 그 정정은 주의 재림의 때를 1843년으로 특정했던 일일일년 원칙의 이전의 실패한 적용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오늘날 밀러파의 한밤중 외침 기별로 대표되는 그 정정은, 앞선 두 이정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정표여야 한다. 사무엘 스노의 사역으로 예표된 그 정정은 이전의 실패한 예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실패했던 그 예측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이었다.

실망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알고, 이상의 성취를 인내로 기다려야 함을 깨달았다. 1843년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1844년에는 그분을 기대하게 했다. 초기 문집, 247.

오늘 엑서터 야영회에서 나온 메시지로 예표되는 그 메시지는 이전에 실패했던 예측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이다. 밀러파 역사에서의 대실망은 일요일 법령 때 일어나는 큰 실망을 대표하지만, 그것은 이슬람에 대한 예측이라는 맥락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무엘 스노의 메시지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한 것이었다. 날짜는 맞았지만, 사건은 틀렸다. 오늘 스노의 메시지로 대표되는 메시지는 2020년 7월 18일의 첫 번째 실망에서 실패했던 메시지를 완성하는 이슬람에 관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시기나 날짜가 더 이상 관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시한을 정하는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나아가 주의 흠어진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그것이 시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는 시간이 다시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이들이 때를 설교하는 데서 비롯된 거짓된 흥분에 빠지고 있음을 보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느 시한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기별이 스스로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으며,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 시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큰 권능으로 나아가 그 일을 행하고, 의 가운데서 단축될 것을 보았다." 경험과 견해, 48, 49쪽.

우리 역사의 네 번째 이정표는 일요일 법령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 노선의 거룩한 역사들을 줄에 줄을 더하여 합하고, 예언의 신을 통해 주어진 그 역사들에 대한 영감의 주석과 결합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강한 천사가 내려온 후 일요일 법령이 네 번째 이정표임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의 순서대로 드러날 장차 있을 사건들'인 일곱 우레의 역사에서 네 번째 이정표는 이슬람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모든 개혁 운동에서 동일한 네 이정표마다 항상 동일한 주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다.

두 번째 이유로, 일요일 법령 때의 예언적 사건들에는 이슬람이 포함될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께서는 이 네 사건의 역사를 특별히 취해 그것들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규정하셨다. 그 상징이 일곱 우레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일곱 우레로 지정하신 그 네 개의 이정표의 전후에는 모든 개혁 운동마다 다른 이정표들도 존재한다. 그것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므로, 이 네 개의 이정표를 포함하는 상징적 역사에서 첫 번째 이정표는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의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가리켰다. 알파와 오메가께서 끝을 시작과 동일시하신다는 사실은, 일요일 법령에서도 이슬람이 등장함을 확증한다. 그 네 이정표 중 첫째가 2001년 9월 11일의 이슬람의 공격이었으므로, 넷째이자 마지막 이정표 역시 미국을 향한 이슬람의 공격이어야 한다.

일요일 법령이 이슬람에 의한 뉴욕시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것은 시작에 의해 식별되는 끝으로서의 해답이 될 것이지만, 최소한 2020년 7월 18일의 예측이 그랬던 것처럼 이슬람의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알파와 오메가가 그 네 가지 역사 안에 또 하나의 역사를 숨겨 두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사실 그 숨겨진 내부의 역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 드러나고 있는 주된 계시이다. 그 숨겨진 내부의 역사는 일곱 우레로 대표되는 네 개의 이정표 속에서 실망으로 시작해 실망으로 끝나는 한 기간이 존재함을 볼 때 인식된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둘째 천사의 도착부터 셋째 천사의 도착까지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상징을 이루는 특정한 역사이다. 그것은 먹어야 하는 천사의 기별로 시작하여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하는 때를 표시한다. 이어서 역시 먹어야 하는 기별인 한밤중 외침을 식별하고, 결국 먹어야 하는 셋째 기별의 도착으로 이끈다.

일곱 천둥의 선 속에 있는 숨겨진 내부 선은, 실망을 나타내는 시작과 천사의 도래, 먹으라는 기별, 그리고 그것이 대실망 때에 반복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도 예언적으로 확증된다.

구약에서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ēmet"는 훌륭한 언어학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와 열세 번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차례로 사용해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 글자들이 '최초 언급의 법칙', 곧 처음에서 끝을 식별하는 원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첫 글자는 '알파'이다. 가운데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이며 반역을 의미한다. 마지막 글자는 마지막, 곧 끝, '오메가'이다. 우리는 이 세 글자가 여러 예언적 선들에 의해 확증된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세 글자의 의미는 세 천사의 각 기별의 의미와 상응한다. 그 세 글자의 의미는 또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되는 정화 과정과 상응한다. '진리'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 결합된 세 개의 히브리어 글자는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가리키는 세 단계는 '영원한 복음'이라 불린다. 그 글자들이 나타내는 세 단계는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제시된 성령의 사역을 나타낸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8-11.

첫 번째 실망은 죄로 표상된다. 이는 모세, 우사,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밀러주의자들의 사례에서 보이듯,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의 사역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묘사하며 그 이유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방금 언급한 각 상징은 첫 번째 실망을 나타내며, 그들의 각 역사는 그 실망이 이미 그들에게 계시되었던 어떤 것을 믿지 않은 죄로 인해 초래되었음을 증언한다. 첫 단계는 죄를 깨닫는 일이다. 첫 단계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다.

숨겨진 역사의 두 번째 이정표는 의인데, 이는 한밤중의 외침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그들은 지체의 때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요한복음 16장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셨고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의가 나타나기에 앞서 지체하셨다. 밀러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을 거두셨을 때 그 오류가 인식되었다. 그 후 바로잡힌 기별의 내용은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았다. 한 부류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의를 드러냈고, 다른 한 부류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로 표상된 반역을 드러냈다.

온 땅의 주 곁에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한때 사탄에게 주어졌던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해, 주께서는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신다. 황금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며, 그 등불이 깜박거리다 꺼지지 않도록 하신다. 만일 이 거룩한 기름이 성령의 기별들을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시려는 그분의 황금 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심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자신들이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는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고, 그들의 생애는 파선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널리 부어질 것이다. 금으로 된 관들을 통하여 그 황금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등불처럼 빛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유의할 것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호렙 산의 동굴에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던 모세로 표상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 두 부류는 한밤중의 외침 이전, 지체 기간 동안에 그들의 품성을 이미 굳혔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태로운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 미련한 처녀들의 본을 따라, 그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손님들이 불려와 심사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의,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예복을 입을 때이다.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구걸하지만, 그들의 요청에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도록 품성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상징한다." The Youth's Instructor, 1896년 1월 16일.

한밤중의 외침이 있을 때 한 무리는 필요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무리는 그렇지 않았다. 둘째 단계는 지체 기간의 끝에 의 또는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신랑이 그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에게로 갔기 "때문에"이다. 둘째 단계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이다. 숨겨진 역사에서의 셋째 단계는 심판과 큰 실망, 그리고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이다.

일곱 천둥 속에 감추어진 역사는 '진리'라는 말로, 처음의 실망으로 마지막 실망을 식별하는 것으로, 그리고 처음과 끝에 메시지를 가지고 도착하는 천사로 증언된다. 이 감추어진 역사는 최고의 권위에 의해 주어진 성경 연구의 규칙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인식할 것이다. 처음에는 밀러의 규칙, 마지막에는 예언의 열쇠.

방금 우리가 제시한 일곱 우레의 역사와 관련하여,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강조점이 있다. 모든 개혁 노선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실망은 이미 확립된 진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모세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언이 지목한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이었음에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잊었다. 웃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라자로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자신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1843년 도표가 제작되었을 때, 지도자들은(동료 압력을 행사하여) 밀러 선생에게 1843년에 관해 그가 늘 말해 오던 바를 무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들은 2,300일의 성취를 1843년으로 예측하는 자신들의 주장에 맞추어, 1843년의 날짜에 여지를 남겨 두었던 그의 확립된 증언을 바꾸라고 고집했다. 밀러의 증언에 따르면, 운동의 다른 지도자들이 가한 동료 압력 때문에 그는 그 예언이 성취될 날짜를 모호하게 지칭하던 태도를 버리고, 그것이 1843년에 성취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와 함께 우리는 "시간에 매인" 또 다른 메시지가 다시는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는 운동의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사실을 거듭 가르쳐 왔다. 첫 번째 실망은 언제나 이미 확립된 시험의 진리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한 진리에 대한 최악된 무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1844년에 끝나는 것으로 특별히 명시되어 있던 윌리엄 밀러의 주된 규칙을 최악되게 무시한 것이었다.

내가 바다 위와 땅 위 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들어,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5, 6.

엘렌 화잇 여사에 따르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던 그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 Future for America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2020년 7월 18일 이전에 함께하던 사람들 가운데 극히 소수와만 교류해 왔다. 그 소수 중 오직 두 사람과만 2020년 7월 18일의 경험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연구하고 검증했는데, 그 둘 중 한 사람은 지금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다. 그러나 밀러 운동의 역사, 곧 그 시작이었고 우리는 그 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때 그 운동에 있던 이들 가운데 여전히 ‘시간에 매단’ 예언 적용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종류의 예언적 흥분을 계속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온전히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아직도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편에 서는 모든 사람은 Future for America가 그러한 모든 적용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라. 이는 그것들이 사탄적 미혹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일곱 우레를 구성하는 네 가지 이정표 속에 있는 내부의 숨겨진 예언적 선은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리고 있다. 이 글은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ēmet"에 대해 우리가 말해 온 내용을 간단히 되짚어 본 것일 뿐이다. 우리가 앞서 나눈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번 검토의 목적은 요한복음 16장 8절이 우리가 일곱 우레 안의 숨겨진 내부 예언적 선을 위해 제시하는 예언적 모델과 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 주는 데 있다.

다음 글에서 다루게 될 결론에 이르기 전에 아직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요한계시록 22:10-13.